

# 파라과이 국별 리포트

2014. 8.

I. 일반개황 .....	1
II. 경제동향 .....	2
III. 정치·사회동향 .....	6
IV. 국제신인도 .....	8
V. 종합의견 .....	9

## I. 일반개황

면적	397천km <sup>2</sup>	GDP (2013년도)	283 억 달러
인구 (2013년도)	6.8 백만명	1인당GDP (2013년도)	4,170 달러
정치 체제	대통령제	통화단위	Guarani(G)
대외 정책	경제실리외교	환율(US\$기준) (2013년도)	4,321

- ▷ 파라과이는 남미대륙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내륙국으로 브라질, 아르헨티나, 볼리비아와 접경하고 있음.
- ▷ 한반도 2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, 인구의 96%가 스페인 및 과라니 원주민 혼혈로 이루어져 있음. 공용어는 스페인어 및 과라니어이며, 국민의 대다수가 토착어인 과라니어를 병용하고 있음.
- ▷ GDP 규모 기준으로 중남미 하위권에 속하며 대두, 소고기 등을 주로 수출하는 소규모 개방경제국임.

## II. 경제동향

### 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 <sup>f</sup>
경제성장률	13.1	4.3	-1.2	13.0	4.8
재정수지 / GDP	1.6	1.1	-1.4	-1.8	-1.8
소비자물가상승률	4.7	8.3	3.7	2.7	4.7

자료: IMF(WEO, 2014.4).

#### □ 농업생산 둔화 등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4.8%로 감소 전망

- 파라과이는 농업이 GDP의 20%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농산물 작황 및 국제시세 변동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침.
- 2012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급감으로 경제성장률이 -1.2%까지 하락하였으나, 2013년에는 농산물 작황 호조,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회복하여 13%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.
- 2014년에는 정부의 긴축적 경제정책 및 전년대비 농업생산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4.8%로 감소할 전망이다.

#### □ 긴축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지속

- 2012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수지가 GDP 대비 -1.4%를 기록함. 2013년에는 대선 및 총선 등으로 인한 정부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-1.8%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.
- 2012~13년 연이은 재정수지 적자로 정부의 긴축적 재정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2014년 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적자 목표 상한선 (GDP 대비 -1.5%)을 넘어선 -1.8%를 기록할 전망이다.

□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2014년 소비자물가 소폭 상승 전망

- 경기침체로 인해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.7%로 하락하면서 중앙은행의 관리목표(5%±2%) 내로 진입함. 2013년에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고기 가격 하락, 아르헨티나산 밀수품 증가로 인한 식료품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하락한 2.7%를 기록함.
- 2014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, 대중교통 보조금 폐지 등으로 인한 공공서비스료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.7%로 상승할 전망이다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기후조건 및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

- 파라과이는 인구의 30%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, GDP의 약 20%를 농업이 차지하여 기후조건 및 국제원자재 가격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임.
- 또한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우루과이, 베네수엘라와 함께 남미공동시장(MERCOSUR) 회원국으로 대 MERCOSUR 수출이 2012년 기준 57%를 차지할 정도로 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음.

□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음

- 파라과이는 중남미 국가 중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빈곤층 감소가 정부의 가장 큰 현안임. 2010년 기준 빈곤율은 19.4%를 기록함. 특히 지방의 빈곤율이 32.4%로 도시의 10.3%에 비해 3배 이상 차이를 보임. 또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.512를 기록함.
- 현 카르테스 정부는 2013년 8월 집권 이후 “빈곤과의 전쟁”을 선포하며 지방의 빈곤계층을 중심으로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,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미미함.

## 나. 성장 잠재력

### □ 농·수·산림자원 풍부

- 파라과이는 방대하고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였으며, 풍부한 수자원과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.

### □ 수력발전 잠재력 풍부

- 파라과이는 중남미 내륙국이나, 수력발전에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어 수력발전 잠재력이 풍부함. 세계 최대 규모의 Itaipu 수력발전소 (14,000MW)를 가동 중이며, 잉여전력을 브라질 등 인접국으로 수출하고 있음.

### □ 취약한 인프라는 성장잠재력 저해요인

- 내륙국인 파라과이의 취약한 인프라 수준은 동국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임. 세계은행의 글로벌경쟁력지수(2013-2014)에서 파라과이의 인프라 부문은 148개국 중 123위를 기록하였으며, 특히 교통인프라 141위, 도로 132위 등으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함. 취약한 인프라로 인해 야기되는 추가 물류비용만 해도 146백만 달러로 추정됨.
- 정부는 도로, 철도, 공항, 통신, 에너지 부문 등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 2014~15년 간 16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함.

## 다. 정책성과

### □ 재정수지 적자 상한 설정 등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

- 카르테스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재정수지 적자 상한 설정(GDP의 1.5%), 정부지출 증가율 제한(4%)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재정책임법(Fiscal Responsibility Law)을 마련함. 동 법안은 2015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중앙은행의 감독기능 강화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화 단계

- 중앙은행의 금융감독 기능 강화와 정부의 개혁 등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여 부실채권 비율이 2013년 11월 2.2%로 하락함.
- 1990년대 초 적절한 규제 및 감독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규제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1995년 이후 14개 은행과 11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등 금융위기가 빈번하였음.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 <sup>f</sup>
경 상 수 지	-57	109	-232	621	1,326
경 상 수 지 / G D P	-0.3	0.4	-0.9	2.1	4.2
상 품 수 지	822	777	501	1,583	2,471
수 출	10,367	12,500	11,515	13,444	14,950
수 입	9,545	11,723	11,014	11,861	12,478
서 비 스 수 지	-25	-103	-100	-148	-183
소 득 수 지	-854	-564	-632	-814	-962
외 환 보 유 액	4,167	4,983	4,994	5,873	6,431
총 외 채 잔 액	5,076	6,011	6,749	7,568	8,466
총 외 채 잔 액 / G D P	26.8	28.3	28.8	27.1	26.6
D S R	6.2	5.5	6.6	6.2	7.0

자료: EIU, OECD(CRAM).

□ 농산물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

- 파라과이는 콩, 육류, 목재 등을 주로 수출하고 소비재, 석유관련 제품 등을 주로 수입함. 농산물 수출로 상품수지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,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.

- 2012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감소, 구제역 발발로 인한 가축 수출 금지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였고,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GDP 대비 -0.9% 적자로 전환됨.
- 2013년에는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풍작 등으로 인한 수출 대폭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증가하여 GDP 대비 2.1%를 기록함. 2014년에도 농산물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폭이 GDP 대비 4.2%까지 증가할 전망이다.

□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외채상환능력 개선

- 외채규모는 증가 추세이나, GDP 대비 외채잔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외채 원리금상환비율(DSR)도 6~7% 수준임. 또한 FDI 유입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채상환능력도 개선되고 있음.

### Ⅲ. 정치·사회 동향

#### 1. 정치안정

□ 야당과의 국정운영협약 체결을 통해 일련의 개혁안 국회 통과

- 2013년 8월 대선에서 중도우파 오라시오 카르테스(Horacio Cartes) 대통령이 당선되어 공공부문 개혁, 공기업 민영화, 인프라 및 인적자본 투자 등의 개혁을 추진함.
  - 카르테스 대통령은 취임 전 제 1 야당인 중도파 급진정통자유당(PLRA) 및 중도좌파연합과 국정운영협약(Governability Pact)을 체결하는 등 파라과이 개혁을 위한 정치적 지지 기반 마련에 힘을 기울임.
  - 취임 1년 만에 재정책임법(Fiscal Responsibility Law) 및 PPP 프레임워크 법안 통과, 농업 부문 과세 증가 등 일련의 개혁안을 통과시켰음.

## 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### □ 토지개혁 문제, 게릴라 활동 등 사회불안 요소 상존

- 2014년 6월, 대규모 홍수로 전국적으로 3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수도 아순시온에서는 파라과이강 독에 주로 거주하던 빈곤 가구들의 피해가 매우 컸음.
- 농업 의존도가 높은 파라과이에서는 작물을 생산할 토지 부족으로 농민과 지주간 토지분쟁이 빈발한 가운데, 새로 집권한 우파 콜로라도당이 토지개혁에 반대하고 있어 토지개혁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.
  - 2012년 6월 토지분쟁으로 인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농민 1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, 전임 루고(Fernando Lugo) 대통령이 탄핵된 바 있음.
- 카르테스 대통령 취임 이후, 파라과이 북부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게릴라 단체인 파라과이국민군(EPP)의 납치, 폭력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2014년 7월초 북부지방 군병력을 50% 증강함.

## 3. 국제관계

### □ 남미공동시장(MERCOSUR) 복귀

- 루고 대통령 탄핵으로 남미공동시장과 남미국가연합은 파라과이의 회원국 자격 정지 조치를 취했으나, 카르테스 대통령의 취임으로 자격 정지 조치를 중단함.
  -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이 자국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베네수엘라 가입을 결정한 데 불만을 표시하며 복귀를 거부하여 왔으나, 2013년 12월 파라과이 의회가 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 가입을 승인하면서 관계를 회복함.

### □ 통상과 투자 지역 다변화 추진

-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과의 이념적 차이, 아르헨티나·베네수엘라와의 갈등 및 브라질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 등으로 인해 통상과 투자 지역 다변화를 추진 중임.



- 2013년 5월에는 남미공동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태평양동맹(Pacific Alliance)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하였으며, 향후 회원국 가입까지 추진하고 있음.

#### IV. 국제신인도

##### □ Moody's 및 S&P, 재정건전성 개선 등으로 신용등급 상향조정

- 2014년 2월, Moody's는 재정책임법(Fiscal Responsibility Law)으로 인한 재정감독 강화, PPP법안 통과로 인한 인프라 투자 확대 전망 등을 근거로 파라과이의 신용등급을 Ba3에서 Ba2로 상향조정함.
- 2014년 6월, S&P 역시 파라과이의 투자 증대 법안 시행, 신중한 거시경제정책 시행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BB-에서 BB로 상향조정함.

※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

- OECD: 5등급('12.6) → 5등급('13.10)
- Moody's: Ba3('13.1) → Ba2('14.2)
- Fitch: BB-('13.1) → BB-('14.1)
- S&P: BB-('11.8) → BB('14.6)

##### □ 2013년 1월, 최초로 국채 발행 성공

- 2013년 1월, 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최초로 발행(만기 10년, 수익률 4.625%) 하였으며, 2014년 8월 4일 10억 달러 규모의 두 번째 국채 발행(만기 30년, 수익률 6.1%)에도 성공함.

##### □ 주요 ECA의 지원태도

- USEXIM: 최고부보율 적용
- ECGD: 단기 인수 가능, 중기 제한적 인수
- Hermes: 단기 전액인수가능

### 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**국교수립:** 1962년 6월 15일(북한과는 미수교)
- **주요협정:** 문화협정(1973년),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(1975년), 무역협정(1982년), 투자보장협정(1992년), 범죄인인도조약(1996년), 무상원조협정(2011년)
- **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**

○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278백만 달러(수출 203백만 달러, 수입 75백만 달러) 수준으로 크지 않으며, 우리나라의 대 파라과이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 6월 말 누계 기준 총 11건(신규법인 수), 6,433천 달러(투자금액)에 불과함.

**<표 3> 한·파라과이 교역규모**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1	2012	2013	주요품목
수 출	200	160	203	자동차, 합성수지, 고무제품 등
수 입	52	106	75	곡실류, 합금철선철 및 고철 등
합 계	252	266	278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### V. 종합의견

- 파라과이는 농업이 GDP의 20%를 차지하여 농산물 작황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침. 2014년에는 전년대비 농업생산 둔화, 정부의 긴축정책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4.8%로 감소할 전망이다.
- 대선에서 오라시오 카르테스 대통령이 당선되어 공공부문 개혁, 공기업 민영화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.

- 외채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총외채잔액 감소, 양호한 외채원리금 상환비율 및 FDI 유입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파라과이의 외채상환 능력은 개선되고 있음.

조사역 허성희 (☎02-6255-5712)  
E-mail: seonghee@koreaexim.go.kr